

광주·전남, 거리 두어도 되는 자영업 확 늘었다

2월 기준 늘어난 8698곳 중 통신판매업 3306곳 달해 카페·음식점·PC방 등도 증가세...주점은 폐업 속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음에도 광주·전남지역 카페와 음식점 등 창업은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100대 생활업종은 16만5404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706개에 비해 5.55%(8698개)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지난 2월 총 7만5042개로 전년(7만1137개)에 비해 5.49% 증가했고, 전남은 9만362개로 전년(8만5569개)보다 5.60% 늘었다.

대표적인 생활업종으로 꼽히는 카페 등 커피음료점의 경우 광주는 전년 1714개에서 2042개로 19.14% 늘었다. 전남지역 커피음료점도 전년 2247개보다 22.12% 증가한 2744개로 나타났다.

교습소·공부방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PC방 등 업종 역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1년 사이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교습소·공부방은 광주가 758개에서 889개로 17.28% 증가했고, 전남은 669개에서 879개로 무려 31.39%나 급증했다.

당구장은 광주가 487개에서 587개로 1년 새 100개나 더 생겼으며 20.53% 증가율을 보였다. 전

남은 699개에서 729개로 4.2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스크린골프점은 광주가 112개에서 134개로 19.64%, 전남은 159개에서 171개로 7.55%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PC방은 광주가 지난해 399개였던 반면 올해 2월에는 459개로 15.04% 늘었고, 전남은 359개에서 372개로 3.6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대면 경제 확대로 통신판매업은 1년 만에 광주가 6208개에서 8003개로 28.91%, 전남이 4864개에서 6375개로 31.06% 늘었다. 1년 새 두 지역에서 통신판매업이 3306개 늘어난 것이다. 통신판매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창업사세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탓인지 광주의 건강보조식품 가게는 404개에서 692개로 71.29%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전남은 491개에서 509개(3.67% ↑)로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쳤다.

거리두기에도 커피음료점과 PC방 등 창업은 계속됐지만 술집들은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이른바 '2차'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에 따라 손님이 줄면서 술집의 폐업은 속출했다.

호프전문점은 광주가 2231개에서 1964개로 11.97%나 급감했고, 전남은 2267개에서 2076개로 8.4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이주점 역시 광주가 189개에서 161개로 14.81% 줄었으며, 전남은 255에서 248개로 2.75% 감소했다.

이밖에 음식점, 여행사, 노래방, 여관·모텔, 목욕탕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은 창업보다 문을 닫는 사업자가 더 많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

시민참여혁신단 대학생 모집 콘텐츠진흥원 내달 1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021년 시민참여혁신단'에 참여할 대학생 20명을 오는 6월11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 운영, 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활동은 오는 7월부터 약 3개월 간 수행하며 올해는 혁신활동 분과와 지역활동 분과로 나눠 총 6회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활동은 기관 혁신 아이디어 제안,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국민평가 참여를 비롯해 혁신제안 공모전 참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연계 활동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집콕·이른 더위에...에어컨 AS 대란 오나

서비스 업체 3~6월 중순까지 사전점검...선정 늘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날씨 여파로 올해 여름철 에어컨 AS(애프터서비스) '대란'이 예고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인 7~8월에 에어컨 AS를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가전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에어컨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6월 중순 전까지 에어컨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에어컨 사전점검 신청이 벌써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3월에 시작한 에어컨 사전점검 신청 건수는 4월 기준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년보다 에어컨 사전점검 접수가 22% 증가한 바 있는데,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5월입에도 전국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올해 이례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점이 올해 에어컨 AS 대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LG전자서비스는 이달 31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에어컨 사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

가전 서비스 업체들은 다른 가전 제품 관련 수리·점검을 위해 가정에 방문했을 때 에어컨을 함께 점검해주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벌써 덥고 습한 날씨가 와서 에어컨을 켜는 가정이 늘고 있어 여름 성수기에는 오래 기다려야 될 것"이라며 "이상 증상 중 다수가 고장이 아니거나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에 사전점검 시기에 미리 조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래차 사업 전환 부품기업에 50억 지원

산업부, 혁신사업 공고...기업당 최대 7000만원

정부가 미래차로의 사업 전환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인 자동차 부품기업에 올해 5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50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1차 공고에 이어 7월 2차 공고를 거쳐 총 9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 단계에 따라 준비단계, 실행단계로 구분해 뒷받침한다.

사업재편을 모색 중인 '준비단계' 기업에는 완성차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부품기업

에 파견해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실행단계'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선정·평가 때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줄 계획이다.

이외에 지난해 출범한 '사업재편 지원단'을 통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개척 등을 후속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품기업 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연구개발(R&D) 시설, 펀드 조성, 재직자 전환교육 등 지원 수단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서광주농협 농촌일손 돕기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서광주농협 임직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화목농촌봉사단'은 지난 18일 광주지역 농가 3곳을 찾아 일손을 보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렉서스 전동화 모델 전 세계 200만대 팔렸다

전기차 등 9개 차종

렉서스는 지난달 말 전동화 모델의 글로벌 누적 판매가 200만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렉서스는 2005년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RX 400h 출시 이후 전동화 모델 라인업을 확충을 이어왔다.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BEV)를 포함한 9개 차종의 전동화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글로벌 판매에서 전동화 모델의 판매 비율은 전체의 3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렉서스는 2025년까지 10대 이상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HEV 등 20대 이상의 신형·개량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렉서스 전 차종에 전동화 모델을 갖추고 전동차 판매 비율이 가솔린 차량의 비율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50년에는 재료제조, 부품제조, 차량제조, 물류, 주행, 폐기, 재활용 각 단계를 포함한 생활 전체로의 탄소중립 실현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이다.

렉서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동화 모델의 보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